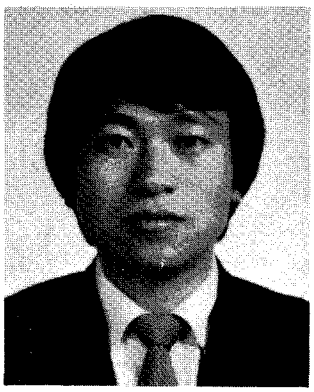
젊은이의 발언

생산성 증대보다는 소비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최 문 섭

과학시스템

1. 양계산업의 결실은 계절도 끝도 없다.

농부들의 피와 땀이 숨쉬는 오곡백과의 황금물결은 끝없이 평화롭기만 하고 한 여름의 무성턴 나뭇잎들은 자태에 치장을 해 본다.

가 을!

과연 결실의 계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우리의 양계산업을 황금물결치는 농업에 견주어 본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혜성처럼 나타난 것도 아니요. 어느 조각가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조각품도 더욱 아닌 우리의 「양계산업」이제 우리도 가을을 맞았으니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가? 양계인 스스로 만이 알 수 있는 이 대답을 양계인 모두에게 물어본다.

2. 양계산업은 양계인의 순수한 피와 땀으로 뭉쳐진 산업의 현장이다.

양계산업이란 축산업의 일부분으로 여타의 모든산업과는 달리 생물(生物) 즉, 살아있는 물체중의 동물(動物)을 길어내어 거기에서 생산된 생산물 및 부산물을 이용하는 산업인 만큼 한치의

거짓이 없으며,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댓가가 결과로써 충분히 증명하여 주는 산업으로 꾸준한 인내와 노력의 산실(産實)임에는 틀림 없다.

이러한 양계산업이 급성장하여 축산업의 일부분으로서의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몇가지 계승 발전시켜 갈 수 없는 일들이 없지 않다.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하여야만 했던가.

돈놓고 돈먹는식의 한탕 주의자들의 투기 장소로 이용되어오던 원인은 무엇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해 보지 못한 중간상인들에게 왜 놀아나야만 했던가를 양계인 모두가 한번더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았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 양계업계에서 발붙일 곳을 잃어 스스로 물러났을 것 임에는 분명하다.

즉 우리의 양계산업은 투기 장소도, 장난 장소도, 은둔 장소도 아닌 선량한 양계인의 순수한 피와 땀을 뭉칠 수 있는 산업의 현장이니 만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좋은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좋아 낼 것은 과감히 쫓아내며, 새로운 것은 더욱더 발전 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3. 생산성 증대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이제까지 우리의 양계산업은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노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생산된 양계산물을 생산량 이상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판매 방법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과잉 생산으로 인한 판매체증 현상을 극복 하여야만 생산의 보람 및 댓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써 생산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이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 혹은 부분을 찾아 내던가, 사용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그 사용 방법 및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여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면 호기심에서든, 필요성 및 중요성을 느껴서든 틀림없이 그 물건은 소비자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나름대로의 사용 방법을 창조,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두의 소비자들은 물건의 품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들이 사용방법을 알고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구매 의욕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의 양계산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생산된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산물별 영양가 분석및 요리방법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양계산물을 이용한 이용방법 및 제 2 의 식품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계속 하여야 함은 물론 기타 양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양계인 모두가 참여하여야 할 때이다.

4. 양계산업 발전의 선도자는 양계인 모두 이다.

닭값이 올랐다고 좋아 하던 때와는 반대로 닭값, 계란값만 떨어지면 한숨쉬며 죽을 상을 짓는 식의 양계는 이미 수십회를 거듭해 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를 불황이라 하여 년중행사, 아니 양계업계의 행사처럼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다. 왜 실증을 못 느끼는가. 지치지도 않는가. 젊기 때문인가. 아니, 흔히 말하는 한물이 갔기 때문인가.

언제까지 이런식의 양계를 계속 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이는 그 누구도, 어떠한 단체도, 관계기관도, 정부도 책임질 수 없는 바로 양계인 스스로의 책임이며 과제인 것이다. "나는 규모가 크니까, 나는 남보다 기술이 좋으니까" 하는식의 자만심을 내세워 빨리 복구하고 쉽게 생산해낼수 있음을 자랑하며 불황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썩어빠진 생각은 빨리 버리고, 우리 양계인 모두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앞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양계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양계산업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